

나는 컴맹이워다.

이 석 철

((주)서울시스템서비스 대표이사)

소프트웨어회사를 운영하면서 컴퓨터 업계에 종사한지 30년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컴맹운운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요즘 나는 확실한 컴맹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노라면 남들은 너무 자기비하 하지 않느냐 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나는 컴맹임을 스스로 인정해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편치카드 신세를 면치 못했던 예전에는 코볼 프로그램으로 펄펄날리며, 컴파일할 때 에러 한번 안 나고 단숨에 데이터를 넣고 돌릴 정도로 프로그램이라 하면 남들이 부러워할 수준을 자부하곤 하였던 시절이 가끔 떠오르지만 아득한 옛일이 되어 버린지도 벌써 십 수년 전도 더 되어버린 지금이다.

그 당시 몇 번씩 컴파일 하여도 에러가 자꾸 나오는 바람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모 프로그래머는 편치카드 상자를

내동맹이 친 일도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 친구는 아이러니컬 하게도 프로그래머로 캐나다 이민을 떠났지만 그 후 소식은 끊어졌다. 다만 이민 가자마자 프로그래머가 아닌 다른 직장을 구했다는 첫 소식이 몇 달 후 들려왔을 뿐 이었다.

그렇게도 펄펄 날리던 나 자신도 펀치카드 시스템이 사라짐과 동시에 컴맹의 세계로 빠져 버렸다. 그 놈의 스크린에 앉아서 키보드를 두드리며 코딩을 하려니까 웬지 쑥스럽고 또 자판을 한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도 남보기에 꼴사나운 것 같아 보이고 또한 직장내에서 진급도 하고 보니까 코딩보다는 시스템 디자인 한 것 검토한답시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스크린과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어느날 직원이 코딩하는 것을 지나가다가 쳐다보는데 도무지 모르는 기호로 스크린이 꽉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 순간적으로 자네 이것 무얼하는 거야 하면서 물어보니까 C라는 언어로 프로그램을 짜는데 매우 쉽고 생산성이 오르는 새로운 기법이라는 설명이다.

사실 이때부터 나는 컴맹의 세계로 들어선 것이다. 그 후로 데이터베이스니 통신 프로토콜이니 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출현하는 새로운 기법과 용어들을 이해하려고 시간을 내

어보려 했지만 영업수주, 고객접대, 자금조달, 회사관리 등 일초의 시간도 아까운 양 뛰어 다니다 보니 이제는 컴퓨터 업계 30년 종사에 남은것은 컴맹이라는 확실한 레이블이다.

나는 나 자신을 컴매이라고 인정하고 다닌다. 요즈음 인터넷이 등장하고부터는 더욱 더 컴맹이 되어 버렸다. 어느 좌석에서 누가 업계에 30여년 종사했으니 컴퓨터 도사가 다 되었겠다면서 이것 저것 물어 올 양이면 괴롭기 짝이 없다. 다행히 옆에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로 하여금 말할 기회를 주어 버리면 나의 무지는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천만다행이다.

인터넷과 인트라넷으로 세상이 자꾸 변하여 갈수록 나의 컴맹지수는 높아만 간다.